

# Contents | 목차



## 해외소식

- 05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오, 붐붐볼레! - 19주년 개교기념식, 그 빛나던 시간들 | 최선희
- 08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2012년 학교건축 프로젝트의 마침표, 학교건축 준공식 | 이재근
- 11 **망글라바, 미얀마**  
미얀마 제일 부자의 이야기 | 김성현
- 14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빗물을 이용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 오성근
- 18 **쭌리읍수어, 캄보디아**  
웡찬마을 소식을 전해 드려요. | 박병수
- 21 **특별기획**  
100호 특집, 해외 파견 활동가 한 마디! | 편집부



## 국내소식

- 24 **특별기획 - 거리모금 캠페인**  
한살림 서울 기부금 전달식 | 편집부
- 26 **함께하는 사람들**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편집부



## 활동터소식

- 29 **해외, 국내 JTS 뉴스**  
미국 / 프랑스 / 인도 / 미얀마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34 **JTS를 일구는 사람들**
- 35 **후원인의 소리**
- 36 **2012 결산서**
- 37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넬날 2013. 3. 4 퍼넬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넬터 JTS  
도운이 강선미, 양은지, 김옥희, 김혜원, 최기진, 이미경, 서민정, 김진진, 최양희, 신인환, 최인준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 / 여는 글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지만 입춘이 지나고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계절이 찾아 왔습니다. 신년 계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저희 JTS도 사업장별 연간 계획을 꼼꼼하게 정비해서 행복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사업장에는 기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인도에서는 수자타 아카데미의 19번째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즐거운 행사가 진행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선 잦은 비로 인해 진행을 못했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학교와 보건소의 준공식을 가졌고, 미얀마와 캄보디아, 필리핀 각 사업장으로 새로 파견 나가는 활동가들을 인터뷰를 통해 짧게나마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JTS 소식지가 벌써 10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지금껏 이렇게 온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JTS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JTS를 성심성의껏 이끌어주신 국내 자원활동가님들과 해외사업장에서 불철주야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외 활동가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칩과 춘분이 지난 후에는 봄 농사를 준비하는 청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봄을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이웃, 제3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건 어떨까요?

JTS 소식지 편집부

사진 / 모던댄스 붐붐볼레



3개월 넘게 준비한 19주년 개교기념식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수자타 아카데미 모나 시스터(필자)의 1년도 끝을 향해간다. 열 아홉 번째 개교기념식 행사 총괄이라는 영광을 누리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참으로 빛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최선희 활동가

수자타 아카데미에는 매월 크고 작은 행사가 있다. 그 중 개교기념식은 단연 으뜸가는 행사이다. 교사, 학생, 한국인 활동가 모두의 정성과 힘을 모아 준비하는 개교기념식, 그래서 더욱 감동적이고 뜻 깊은 행사이다. 그 감동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쉬우므로 JTS 식구분들과 나누려고 한다.

개교기념식 3개월 전, 작년에 처음 선보여서 대히트를 쳤던 2학년 꼬마 학생들의 꼭두각시, 씩씩한 남학생들의 박력 있는 태권도, 인도 특유의 여성미를 보여주는 전통

# “ 지금의 이 아이들이 먼 훗날 수자타 아카데미 선생님이 되어서 춤을 가르치는 날이 오겠지?”

무용, 다양한 퍼포먼스를 가미한 모던 댄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정하고 프로그램별 담당교사도 선정하였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탄하였다. 이 공연을 하려면 아이들이 필요하니 조례시간에 갖가지 유혹의 말들로 아이들을 설득하는데, 손을 붙잡고 사정사정 하며 아이들을 선발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이름도 적고 눈도장도 찍었다. 이 아이들이 다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개교기념식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 올해는 무려 2회나 진행했다. 이렇게 뽑힌 아이들로 연습이 시작되었다. 이 아이들이 연습에 다 와준다면 얼마나 고맙겠는가? “아버지가 춤추면 때린다고 했다, 집이 멀어서 늦게 가면 안 된다” 등등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엄선된 아이들이 즐기 시작했다. 다시 조례시간에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사정사정하는 날이 이어졌다. 그러니 연습에 와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고맙던지.

모던 댄스는 가야에서 잘 나가는 댄스 강사가 매일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주었는데 개교기념식 준비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것이었다. 오~신이시여! 내 속은 점점 타 들어가고 모던 댄스 아이들은 매일 나에게 선생님은 언제 오냐며, 언제부터 연습할 수 있냐고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열의 넘치는 아이들이 공연을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사실 이 아이들은 1년 동안 행사공연에서 빠진 적이 없는 수자타 아카데미 전문 댄서들이었다. 그래서 모나 시스터가 직접 손을 쓰기로 했다. 예전에 인도 영화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져 신나게 추는 춤을 보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이번에 그 춤을 한번 시도해보리라 마음을 먹었다.

수자타 아카데미 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지는 밝고 명랑한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목표로 매일 저녁 방에서 혼자 노래를 수십 번 들으면서 머리를 쥐어짜며 동작을 만들었다. 창작의 고통은 컸지만 아이들에게 매일 춤을 가르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동작을 배우는데 재밌어하고 집중을 잘 했다. 끝까지 아이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연습도 잘 따라와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어느 정도 동작을 다 익히니까 집중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잠시 한눈을 팔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장난치기에 바빴고 화를 내면 잠깐 말을 듣다가도 떠들기 일쑤였다. 사실 동작이 맞지 않아서 몇 번이고 무한 반복시키며 무리하게 연습을 시켰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좀 힘들긴 했다.

의상은 교복으로 정해졌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복을 입고 할까 생각도 했지만 1년중 가장 큰 행사이니 개인별로 새 교복을 맞추기로 하였다. 전문 재봉사를 불러서 치수를 재고 얼마 뒤에 자기 이름이 적힌 교복을 받아든 아이들은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다. 새 교복을 입혀놓으니 우리 아이들도 좋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못지않게 세련되고 멋있었다.

개교기념식 전까지만 해도 본 무대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지만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 이 아이들은 역시 나처럼 무대 체질이었다. 당일 날 무대에서 모두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은 다 눈처럼 녹아버렸다.

학창시절 이렇게 큰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는 경험은 인생의 큰 선물일 것이다.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의 이 아이들이 먼 훗날 수자타 아카데미 선생님이 되어서 춤을 가르치는 날이 오겠지? 전통 무용 담당교사였던 13학년 디네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개교기념식 공연을 했었다고 하니 수자타 아카데미 19년 역사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듯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씨앗이다.

꼭두각시를 아무지게 가르쳐 준 아나미카, 전통댄스와 메모리얼 댄스 두 개를 책임감 있게 지도한 디네쉬, 제일 말쑥꾸러기들만 모인 모던댄스 아이들을 통제하랴 춤추랴 바빴던 아자드, 고음 불가 학생들이지만 환영의 노래를 끝까지 열심히 연습시킨 수만과 린꾸, 이런 헌신적인 수자타 아카데미 교사들이 없었다면 개교기념식 공연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에 더욱 빛나고 소중한 시간들,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태권도 공연

개교기념식 피날레

사진 / 타푸난 학교 준공식



## 2012년 학교건축 프로젝트의 마침표, 학교건축 준공식

필리핀 사업장에 축하할 일이 가득 생겼습니다. 학교와 보건소 등 여러 사업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워낙 오지에 사업장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껏 고생하신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이재곤 활동가

2012년 프로젝트의 마무리로 이제 준공식이 남았다. JTS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께서 준공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인도에서 바로 오신다고 한다. 작년에 BTN에서 찍은 준공식 현장을 담은 영상을 본적이 있다. 영상을 볼 때만 해도 ‘스님하고 같이 다니면 재미있겠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막상 직접 준공식 준비를 하려니 막막했다. 하지만 작년 준공식 때 준비했던 자료가 있어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경험이 많은 배명숙 활동가님의 진두지휘 아래 준공식 준비 전체계획을 짜고 진행하기 시작했다.

준공식 준비 총 책임을 맡은 배명숙 활동가는 준비기간 동안 실무자 간에 ‘전체 준공식 내용 공유’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율’을 강조했다. 나는 평소 때 의견이 있어도 속으로 가지고 표현을 잘 하지 못해 같이 지내는 실무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고 이번 준공식 때는 최대한 내 의견을 많이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연습’을 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한 달간의 준비기간 동안 의견이 부딪힌 적도 많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와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26일, 27일, 28일 이렇게 날씨가 다가오는 동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잊고 오로지 준공식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집중했다. 왜냐하면 배명숙 활동가가 실무 책임을 맡고 있긴 했지만 나도 2012년 학교건축을 마친 것을 스님과 방문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였고, 자랑을 제대로 하려면 준공식 일정 동안 손님대접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29일이 되었다. 나는 방문단이 오기 전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스님 일행을 맞이하기로 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다. 준공식 관련 준비를 하기위해 이런저런 점검을 하고 9시에 잠을 청했는데 한참을 뒤척이다 일어나보니 1시, 다시 잠을 청해 봐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을 많이 하긴 했나보다.

어떤 클래식 보다 아름다웠던 보트엔진 소리 이번 준공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프로그램과 교통수단 두가지였다. 필리핀 JTS가 지원하는 학교가 대부분 오지에 있어서 이동수단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첫날 방문하는 ‘타푸난’이라는 마을은 보트를 타야 갈 수 있는 마을이라 사전에 배를 3대 예약 했다. 작년 준공식 때 배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 지라 이번에는 만전을 기해 준비했었다. 그런데 선발대로 출발해서 강어귀에 도착했는데 보트가 없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무전도 되지 않고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수영을 해서라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러 가고 싶었지만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길 외에는 달리 대처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길을 안내한 현지인이 “보트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나?”면서 장난을 걸었다. 나는 지금 보트가 안와서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장난을 치는 현지인이 야속했다.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다. 정말로 미세하게 보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강어둠에서 들려오는 보트 소리는 정말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다. 평소 때 배를 탈 때는 시끄럽기만 했던 그 보트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이야. 방문자들이 도착하기 15분 전에야 보트 3대가 도착했다. 도착 하는 대로 보트를 방문객에게 보낼 수가 있었다. 그 이후에는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오히려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끝나서 마을사람들과 음식도 먹고 여유롭게 나올 수 있었다.



사진 / 코롱코롱



티푸난에서 선서식을 하는 학생

코몽코몽을 타고, 험난했던 방문길 다음날은 '인라보'라는 마을을 방문했다. 원래 계획은 덤프트럭과 앰블런스를 빌려 방문할 계획이었다. 길이 미끄러워 일반차량은 진입자체가 허용이 안 되고 전문구동 차량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그마저도 힘들다는 현지스텝의 정보가 있었다. 계속 길을 체크했지만, '방문을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 길이 너무 미끄러우면 차가 진입할 수가 없고, 걸어서는 너무나 멀기 때문이다. 급하게 '코몽코몽'이라는 차량을 한 대 빌렸다. 그 차량이라면 이런 빗길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코몽코몽은 덤프트럭보다 크기가 크고 차량의 높이가 높았다. 바퀴에는 체인을 감았다. 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방문객들은 지지대를 잡고 있어야만 몸을 가눌 수 있었다. 코몽코몽이 앞서고 스님 일행을 태운 '분독'이라는 4륜구동 차량이 뒤따랐다. 코몽코몽을 따라오는 분독은 길이 미끄러워 이리저리 춤을 추며 코몽코몽을 뒤따랐다. 한 방문객이 '차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다. 4개의 바퀴를 동시에 돌려서 겨우겨우 쫓아왔다. 중간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진흙에 빠진 분독을 빼내고 하면서 인라보 마을 근처까지 우여곡절 끝에 갔다.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다. 마을을 방문하니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주민들은 준공식 티셔츠를 입고

스님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번 준공식에는 '선서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추가 되었다. 학생은 '학교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다니겠다.', 학부모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잘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준공식이 있기 전에 마을을 방문해 마을 사람들과 사전에 연습을 했다.

준공식 당일, 야심차게 준비한 이 프로그램은 스님과 방문객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 스님뿐 아니라 같이 갔던 코이카 부소장님, 다물록 시장님도 선서를 하였는데, 이곳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JTS, 코이카, 다물록 시가 문구류와 선생님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선서식을 즉석에서 진행하였다. 너무나 뿌듯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준공식 때 학부모, 학생, JTS, 코이카, 다물록 시 이렇게 서로에게 약속한 것이다.

스님 일행을 보내며 학교 건축 준공식 외에도 보건소 준공식, 마카파리 고등학교 준공식도 일정이 늦춰지는 일은 없었고 무난하게 치러졌다. 스님은 인라보를 방문하고 다시 한 번 산 속 깊이 있는 센터도 방문해서서 하룻밤을 자고 센터가 변한 모습을 소개하고 직접 나무도 심고 가셨다. 밥도 안 먹고 일 시킨다고 농으로 말씀하시면서도 방문객들과 함께 준비했던 식수들을 전부 다 심으셨다.

끝나고 나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들만 남는다. 준비기간 동안 나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후회도 딱히 없었다. 힘든 순간에는 나의 단점을 보고 그걸 극복하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그걸 극복해보려는 나의 모습이 좋았다. 연습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이대로도 좋다. 준공식이 끝난 지금부터는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김성현 활동가(우)와 마을주민(좌)

## 미얀마 제일 부자의 이야기

홍수 피해 복구 사업을 진행 중인 미얀마에서 있던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모여 이런 멋진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현지 파견 중인 김성현 활동가께서 지난 1년간 있었던 고마운 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부자가 된 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김성현 활동가

다카마을 주민 회의



1년 동안 미얀마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힘에 부쳤던 적도 더러 있었다.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손발이 맞지 않아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진 것처럼 버거울 때도 있었고, 딱 막힌 미얀마 행정처리를 뚫고 겨우 일이 되는가 싶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 골머리가 아팠던 적도 있었다. “골머리가 썩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실감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올 때는, 정말 이지 모든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며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며칠간의 휴가가 필요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매번 힘에 부칠 때면, 자양강장제 마냥 피로와 번뇌를 말끔히 씻어주는 “주민들의 따뜻함”, “포근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식지 100회 특집을 맞아 이번 호에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안겨준 마을 주민들의 고마움을 몇 가지 에피소드로 소개해 보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한다.

현재 미얀마 JTS는 작년 우기 때 심각한 홍수피해를 입은 마을을 대상으로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에 가옥 처마 밑까지 불어난 강물로 인해 삶의 터전인 농지는 물론, 다리와 학교까지 피해를 입은

마을들이 많아서, 미얀마 JTS는 피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다리와 학교 복구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사업대상마을 중 하나인 쫘차웅 마을의 이웃 마을에서, 특히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쫘차웅 마을 다리는 한국의 한 연예인이 기부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의 출처를 파고 들어보니, 쫘차웅 마을 어머니들이 주변 마을 아낙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주몽’이 와서 다리를 복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농담을 했는데, 이게 몇몇 이웃 주민들에게 사실로 와전되었던 것이다. 내가 머리를 자르기 귀찮아 묶고 다니다 보니 생긴 해프닝인데, 한국에서는 인상이 사나워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인상’이니 ‘야쿠자’ 였고, JTS 박지나 대표님께서도 첫 대면 시 권투선수 같다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의 인상임을 감안하면 “주몽”이라는 미얀마에서의 별명은 과한 칭찬이라 하겠다.

마을방문의 얘기를 하자면 늘 마을에서 ‘과식’을 할 수 밖에 없는 고통스런 기쁨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쫘차웅 마을은 사무실에서 택시와 고속버스, 오토바이를 차례로 갈아타고 총 6시간을 가야 한다. 따라서 새벽 5시에 사무실에서 출발을 하면 낮 11시 가까

마을에 도착 하는데, 주민회의나 모니터링을 조금 하고 나면 금방 점심시간이 된다. 그러면 주로 마을 이장 맥이나, 다른 집들에 비해 형편이 좀 나은 주민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곤 하는데, 나를 포함한 미얀마 JTS 스텝들에게 어찌나 귀한 손님 대접을 해 주는지, 매번 갖가지 반찬이며 밥이 산더미처럼 차려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부담스럽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미얀마 스타일이니 잔말 말고 먹으라 하신다. 문제는, 적어도 밥그릇을 세 번 정도 비우지 않으면 혹여 외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건가, 미얀마 음식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반찬은 맛이 없는가 하시며 실망하는 눈치라 네 번 정도는 밥을 더 덜어서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상을 옮겨서 과일과 과자를 먹으라고 또 권하신다. 가끔 직접 짠 신선한 우유를 데워서 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마을에서는 실로 귀한 거라 아무리 밥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두 잔 이상 정도는 더 마셔야 흡족해 하시면서 일어나자고 하신다. 예전 우리나라 문화와 많이 비슷하다 하겠다. 실제로 위장이 나보다 작은 JTS 현지인 스텝은 이러한 주민들의 청을 거절 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덩달아 억지로 먹다가 결국 토하고 말았다. 장이 큰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비단 먹을 것을 많이 주시는 것에만 따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JTS는 모니터링이나 주민회의 차 마을을 방문 할 때면, 불필요한 교통비와 식비를 줄이고자 최소 인원만으로 팀을 짜서 방문을 한다. 하지만, 가끔 여러 가지 일을 인근 마을 등에서 동시에 해야 할 경우에는, 5~6명의 스텝이 한 번에 마을을 방문을 할 때도 있다. 이럴 때면, 마을에서 직접 오토바이로 모든 스텝들의 이동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 마을이 아닌, 이웃마을의 업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토바이를 태워 주시고는, 하루 종일 가이드까지 해 주신다. 거기다가 사무실이 있는 양곤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잡을 때면 기어코 우리들 보고는 그늘에서 앉아 쉬고 있으라고 하고, 버스가 오는지 대로에 나가셔서 직접 대신해서 봐주신다.

소소한 고마움까지 다 얘기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따름이다. 행여 추운 나라에서 온 필자가 목이 마를까 시원한 물을 사시는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대신 들고 다녀 주신다. 30분 거리의 상점에서 물을 사와 주신 것만으로도 더 없이 고마운데 행여 손이 모자랄까 대신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물을 건네주시려고 필자를 따라다니시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고마움을 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아무리 괜찮다고 직접 물을 들고 다니겠다고, 물병이 든 비닐봉투를 달라고 말씀 드려봤자 그들의 끝없는 친절 앞에서는 허사다. 그리고는 갑자기 누군가를 시켜 우산을 가져오게 하시고는 그것마저 내 손으로 들지 못하게 하시고 옆에 서서 뒤통수를 가려 주신다. 빈손으로 양곤으로 향하는 것이 못마땅하신지, 과자며 과일이며 한 봉지씩 꼭 챙겨주시고, 피곤하면 언제든지 자고 가라며 서운해 하신다. 미얀마에서는 외국인과 현지인이 같이 자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괜찮다고 하신다. 태양이 뜨거우니 한국에 갔다 올 때 꼭 선글라스를 챙겨 오라고 하시고, 오토바이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걸 보시고는 코코넛 머리 기름을 직접 발라 주시고 거울을 보라며 들고 앞에서 서 계신다.

춥고 배고프고 갈 곳 없으면 거지라 했다. 뒤집어 보면, 항상 따듯하고 배부르며 오라는 데가 많으면 부자인 셈이다. 고로 미얀마에서 제일가는 부자는 내가 아닌가 싶다. 사업장 주민들의 따듯한 마음에 내 마음 또한 차가워 질 새가 없으며, 한번 마을에 갔다 하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먹이신다. 게다가 사업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족처럼 생각하고 놀러 오라고 하시니 나는 길을 잃어도 갈 곳이 참 많다. 이처럼 이방인을 아들 대하고 형제 대하듯 대해주니, 난 미얀마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아닌가 싶다. 도와주려 왔는데 받는 것이 더 많으니, 골머리가 썩고 머리에서 열이 나도 발걸음은 절로 마을로 향한다.

\*아빠 까바르는 'How are you?'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입니다.



## 빗물을 이용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지 기후 사정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성근 활동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네시아 JTS - 오성근 활동가



본래 사업 기한이 2012년 12월 31일인데 잦은 강우로 인해 관개수로 공사가 지체되어 부득이 하게 사업 연장을 하여 3월 31일을 기한으로 마무리가 한창이다.

지부 활동가들의 맘을 즐겁게 하였던 인도네시아의 우기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 지역은 연중 4,000mm라는 엄청난 강우량을 자랑한다. 우리나라가 연 평균 강수량이 1,400mm 내외인 것을 감안

한다면 무려 3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량이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곳은 늘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확히 말한다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고 건기에는 그 절대 수량 또한 부족하다. 이 지역은 시설 미비로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하면 상수도 시설이 전무하다. 또한 해발 1,000m에 이르는 고원지대로 우물을 파서 물을 조달하는데 많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경우 "air kuning(아이어르 꾸닝, 누런 물)" 즉 육안으로 봤을 때도 탁하여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다.

마을 공동 취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원(水源)의 경우, 산수(山水)인데 갈수기에는 수량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류 지역에 논농사를 하면서 사용된 농약으로 인하여 오염된 상태이다. 또한,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 유치원의 경우 학교 내에 이렇다 할 수원(水源)이 없어서 학교 내 화장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기 물 내릴 물조차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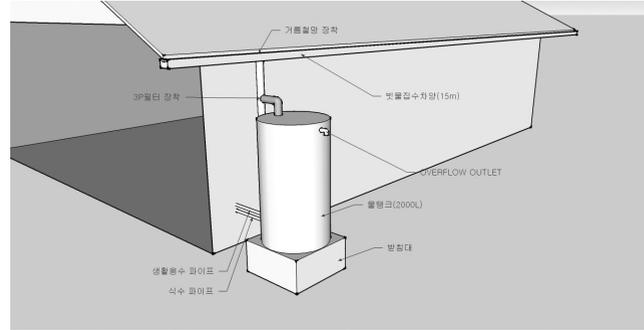
갈수기 때 마을 공동취수장의 상태

이렇듯 현장에서 지역의 산적인 물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지역의 풍부한 “빗물”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전부터 빗물을 이용해 왔다. 다만, 그 시설이 너무도 조악하여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원 부족으로 정화 및 저장시설이 부재하여 빗물을 받아서도 잘 활용하지 못해왔다.

우리는 이 점들에 주목하여 국내외 각종 관련 자료를 찾았고 빗물 관련 국내 최고권위자인 서울대학교 건설 환경공학과 한무영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노력한 끝에 KCOC에서 공모하는 “단원 프로젝트”에 당선이 되어서 미화 4,000불의 지원을 받아서 총 5개소의 유치원, 초등학교에 “빗물을 이용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었다.

학교별로 2,000L짜리 대형 물탱크의 저장시설과 그 저장시설을 지탱해줄 기초, 200㎡의 집수면(集水面)을 커버 할 수 있는 빗물받이와 저장시설, 집수시설을 연결해주는 배관으로 구성된 “빗물 집수 및 저장 시스템”을 지원하였다.



빗물 집수 및 저장시설 개념도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완성하였던 초등학교 1개소의 경우, 기초가 물탱크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러한 실패를 바탕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현재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좀 더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량하여 2013년도 사업인 “빗물을 이용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 시공된 초등학교, 유치원의 빗물 집수시설

프로젝트 후 모니터링 결과 학교 측과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도 주

변 초등학교로부터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다만, 13'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학교나 유치원등 공공시설이 아닌 각 가구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라고 민 되는 점이 있다.

마을에선 공동 취수장에서 만나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대화도 하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네 공동 빨래터와 같은 구실을 한다. 하지만 각 가구별로 즉, 현재의 집중식에서 분산식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주민들 간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생활은 좀 더 편리해 질 수 있으나 기존의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단순히 물의 원활한 공급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문화라는 것도 많이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래서 각 가구별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3~4 가구정도를 묶어서 소규모로 공동취수장을 만드는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또, 가구에 설치 할 경우,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보자면 기술자를 고용하여 아주 좋은 품질로 완성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고려하고 있다.

첫째, 주민들의 참여도 문제이다.

고용된 기술자 위주로만 진행된다면 주민들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된 목표인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될 개연성이 있다. 즉, 단순하게 수혜자-시혜자 관계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을 고안중이다.

둘째, 지속 가능성 차원이다.

빗물을 이용한 집수 및 저장 시스템을 설치 할 시에 주민들의 참여 비중이 적다면 이후에 관리에 있

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설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면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몸소 익히고 기술자로부터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수준의 기술 전수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후 유지, 관리, 보수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장에서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의 원칙이라거나 우리의 목표가 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만의 틀에 갇혀서 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현실에 타협을 하면 원칙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

우리의 이해와 주민들의 이해, 그리고 지역정부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원칙이 중요한 만큼이나 주민들의 현실이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현장 활동가들의 몫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지붕 만드는 날



## 웡찬마을 소식을 전해 드려요.

어디인지 모르는 낯선 길가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저 앞에 희미하게 건물 한 채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보니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저희 마을의 학교였지요. 현대 마을주민들도, 기술자도 안보이고 학교 건물은 벽이 올라가다 멈춰있는 상태였지요. 왜 아무도 없을까 의아해하면서도 벽이 올라가다 멈춘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혼자서 벽들을 쌓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일하다가 핸드폰 소리에 깜짝 놀라 쥐고 있던 벽돌을 놓치면서 그만.. 잠에서 깬습니다.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재미있기도 하고 왠지 모를 씁쓸함도 느껴지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박병수 활동가

현재 웡찬학교의 모습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웡찬마을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013.01.22. **오늘은 지붕 만드는 날** 5일 전부터 거푸집을 만들고 철근을 배근하여 드디어 오늘이 지붕 보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마을 주민들과 의논하여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출발했는데 역시나 웡찬마을. 서른 명 정도 되어 보이는 많은 주민들이 일찍부터 나와 지붕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팀을 나누어서 지붕보를 만들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아마도, 그 모습에서 가족을 위하는 사랑을 보지 않았나 싶네요.

지각한 학생이 강의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듯이 살그머니 주민들 사이로 들어가 자재 나르는 작업을 도와 드렸습니다. 그제 서야 저를 발견하신 주민 한분이 웃으시며 저에게 무어라 소리치시니 다른 주민들 시선도 저에게 집중되면서 미소를 보냅니다. 현지시스템 Dara에게 물어보니 제일 늦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은 좀 더 일하다 가라고 농담을 던지셨답니다. 대답만큼은 자신 있게 알겠다고 하고선 콘크리트 바구니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힘이 나는 날은 조금 힘들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13.02.07.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웡찬마을에 도착하니 한 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점심을 먹지 못한 터라 배도 고프고 이전 마을 주민들과 가진 미팅에서 기운이 쪽 빠지는 바람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배에서 내려 마을입구로 들어섰을 때 저기 보이는 집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기운이 없어서 간단히 인사만 건네고 학교공사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교공사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안면이 있던 마을 주민이 이리 와서 한잔하고 가라며 저를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기에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제 손을 잡고 데려간 곳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잔치라고 해봐야 아기 아버지가 꺼내 놓은 전통주가 전부였지만 말이죠.

보자기에 싸인 아기는 얼굴만 살짝 내놓고 엄마 옆에 누워 굳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 마음 한 칸에서 울컥하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일까 한참 생각하다가 아

기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적당히 취한 아기 아버지가(얼핏 보아 제 또래인 듯 보입니다.) 제 손을 잡으며 계속 고맙다는 말을 건넵니다. 아이가 건강히 태어나서 기쁘고 이 아이가 5년, 6년이 지나면 저기 보이는 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며 그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말을 건넵니다.

아마도 아기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그 감정은 저를 향한 질책이었고 새로운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일들, 그 와중에 쏟아지는 요구들,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제 모습들. 그러는 사이 잊어버린 처음의 마음가짐.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저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100호 특집, 해외 파견 활동가 한 마디!

저희 JTS 소식지 100호 발간을 기념해서 현재 해외에 파견 중인 한국 활동가들과 현지에서 JTS와 함께하는 현지 봉사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한 마디. 들어볼까요?  
편집부

## 캄보디아

**박병수**  
100회 특집! 10,000회까지  
쪽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행복하세요. ^^



## Oak Dara

캄보디아 JTS 응원 많이  
해주시구요.  
이렇게라도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도네시아

**오성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임희성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2013년 되시길.



## 김선욱

JTS 소식지 100회를 축하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귀국이네요.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미얀마

**Ma Su Su Tin**  
JTS가 더 많은 가난한  
미얀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 Ma Ei Kaing Mon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Ma Zar chi Phway**  
미안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보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Ko Thant Zin Minn**  
만약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Daw Swe Swe Win**  
나는 JTS가 평생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Daw Khin Khin Ti**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JTS의 원칙과 방식이  
너무 좋습니다.



**김성현**  
미안마를,  
주민들을 더 안고 싶다.



**인도**

**김신아 (인도JTS 팀장)**  
수자타아카데미 20주년이 되어갑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마을의 보리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동호 (마을개발)**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잘 살아 보겠습니다.



**주연우 (건축부)**  
미친 듯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2013년 달려보겠습니다.



**박성재 (마을개발)**  
하루하루 현재 이곳에  
집중하겠습니다.



**최선희 (교육)**  
2013년에도 수자타  
아카데미 교사, 학생,  
한국인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백슬기 (총무)**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김정준 (인도 정토회 팀장)**  
다만 할 뿐!!



**인도인 스태프들**  
일하는 과정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두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지금 이렇게 JTS에서 함께 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인도인 교사들**  
아이들과 가족과 JTS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필리핀**

**임선호**  
열심히 삽시다.



**배명숙**  
Mindanao, forever!  
민다나오, 포에버!



**송현자**  
살라맛 민다나오, 살라맛 제이티에스,  
더 나은 민다나오를 위하여!



(좌)JTS김기진 대표님과(우)한살림서울 이사장님



2013.2.1 (금)

## 한살림서울 기부금 전달식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라는 구호 아래 꾸준히 활동해주신 ‘한살림 서울’에서 2월 1일, 비가 많이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JTS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편집부



‘한살림 서울’은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설립 이래 평화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종교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으며, 2008년 북한 결식아동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한살림 서울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2009년 (각 12월 한 달간) 에는 총 43,785,820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2010년과 2011년도(52,027,619원)에 이어 2012년 12월 한 달간 모금운동을 펼쳐 총 17,184,335원을 2013년 2월 1일에 JTS에서 모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은 ‘한살림 서울’ 박금순 이사장님과 각 지부 활동가분들의 인사, 한국 JTS 김기진 대표님의 JTS 소개 및 북한 소개 영상, 기금 전달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살림 서울의 모금활동으로 북동지부 7개 매장에서 각 매장 별로 목표액을 정한 후 모금운동을 하고 떡, 밀반찬, 국과 간식거리를 만들어 팔거나 폐식용유로 만든 빨래비누 판매, 활동가들이 틈틈이 떠오르는 환경수세미 판매, 한살림 포인트 기부 등 여러 분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한 분, 두 분 소중한 마음이 모여 북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으로 보내지는 모습이 전달식 참가자 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드린 것 같았습니다.

후원해주신 모금액 17,184,335원은 굶주리고 추위에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한국 JTS에서 해외사업장으로 파견을 나가시는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미얀마로 파견을 나가시는데요, 국내에서도 여러 활동들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 해외사업장에서도 멋지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독자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문태훈 활동가

Q.지금까지 한국 JTS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처음 와서 3개월 동안은 스스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책이나 자료를 통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또 기본적인 사무실 업무를 파악하고 다른 봉사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나 분리수거 같은 일상 업무를 좀 더 나서서도 맡아 했습니다.

기획홍보팀 소속으로써 각종 행사 준비와 해외 파견 봉

사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Q.출국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떠나기 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파견 전에 캄보디아나 라타나끼리 주에 대한 정보를 가능하다면 모을 수 있는데 까지 수집하려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힘닿는 곳 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Q.해외 파견을 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또 '이 정도는 이뤄내고 싶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후자는 이미 현지에 계신 파견 봉사자들, 현지 활동가들과 잘 어울려서 적재적소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따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Q.아직 해외파견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마디 조언을 주신다면?

해외파견은 아니더라도 한 번 이곳 JTS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해외 파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통해 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JTS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살펴보고 봉사활동이나 체험 등 여러 활동이 있으니깐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이모아 활동가

Q.해외 사업장으로 파견 가기 전 한국 JTS에서 일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미얀마 파견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미얀마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전반적인 사업내용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을 브리핑하고 결재 받는 일들을 하며 미얀마 파견 전 관련 사업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곳 JTS를 알게 된 건 재작년 이었습니다. 그 때는 가끔 들러서 인사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직접 일을 하고 나니깐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때는 해외봉사에 대한 마음이 확실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이랄까, 완전하게 내 마음을 굳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뒤늦게 여기 왔는데, '그 때 왔으면 결단 내리기가 수월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던 저한테 이 익이었고,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좋았습니다.

Q.해외 사업장으로 가게 된 과정이 궁금해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단체를 통해서 갈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해외 봉사에 대한 마인드랑 타 단체의 마인드랑 너무 다름을 알고 그것에 대해 이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속한 단체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봉사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두 가지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봉사를 하려면 그 단체의 역할과 이념이 나와 같아야 내가 성숙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Q.먼 타지로 떠나시는데 걱정은 되지 않으세요?

걱정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더워. 일단 식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나라의 기후를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서로 잘 융합되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수용하는 자세로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열린 마음으로 해외봉사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Q.독자 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전 3월에 떠납니다. 이제 막상 가려니까 기대도 많이 되지만 걱정도 많이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JTS의 이름을 걸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면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진진 활동가

Q.어떤 계기로 JTS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는 저도 해외봉사하려는 생각을 하고 다른 단체랑 먼저 연락이 됐었는데 그곳은 해외로 바로 파견될 수 있었고 JTS는 6개월간 교육을 하고 간다고 해서, 해외봉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파견되는 것보다 교육을 받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Q.짧지 않은 파견인데, 어떻게 결심하셨나요?

저는 일 년이 길다고 생각을 안해요. 일 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면서 일 년은 진짜 금방 가는 시간이라서 특히 뭐 젊을 때 일 년은 그렇게 길거나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Q.해외 사업장으로 갈 준비는 잘 마쳤나요?

거의 마쳐가는데 등산화 같은 현지에서 필요한 물건을 아직 구매를 못해서 그것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Q.아직 해외 파견 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마디 조언을 주신다면?

저도 사실은 해외봉사를 결심하기까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결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고요. 해외봉사라는 게 그렇게 큰일도 아니고 뭔가 인생을 대단하게 바꾸거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막상 하고 보면, 그런데 한 발 내딛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면 일단 한 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장 준비하는 모습



함께하는 김장 준비

### 1. 미국 JTS 연말캠페인 소식.

미국 JTS는 지난 12월 북한의 고아원에 있는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1,000개의 선물상자 보내기(한 상자 \$40) 2012년 연말 캠페인을 미주 지역 정토회 회원들과 함께 진행 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부터 하와이에 사는 분들까지 미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 해 주셨습니다. 뉴욕에 사는 한 청년은 1주일 주급을 후원금으로 보내기도 했고, 많이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후원금을 보내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공연수익금을 보내 주시기도 했고 송년 회 때 모금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한 마음 한 마음이 몰방울처럼 모여 북한의 어린이들 1,450여명에게 선물상자를 보낼 수 있는 \$57,692.35라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미주 지역 정토회에서도 캠페인 하신느라 수고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애틀 정토회에서는 회원들이 김장을 하여 후원금을 보내 오셨는데 "이번 김장은 1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약 15 상자의 김치를 담궈 판매의 방식 보다는 후원을 받고 김치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많은 도반 분들과 지인 분들께서 JTS 후원에 참여 해 주셨습니다. 김장은 신수지 총무님의 레시피를 따라 청결과 맛을 보장하는 정토회 표 김치로 거듭났으며, 만들기와 판매에 직접 참여하신 도반님들, 또 후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라는 따스한 소식도 함께 보내 주셨습니다. 정토회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북미주 전역에서 캠페인을 위해 수고 해 주신 지역정토회 총무님들과 JTS 담당자님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가까이서 멀리서 후원금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전 소식도 희미하게 들려오고 점점 잊혀져 가는 북한의 어린이들,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과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후원자님들과 함께 JTS는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미주에서도 직접 JTS에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 **체크를 보내실 경우** payable at JTS America  
후원금 보내시는 주소 1124 Abbott Blvd, Fort Lee, NJ07024
- 2. **은행에 직접 입금** Bank of America (NY Branch)  
예금주: JTS America 계좌번호: 4830 2705 7653
- 3. **후원분야** 북한: 고아원에 영양식보내기  
필리핀/캄보디아: 학교 짓기와 학용품 보내기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학용품, 지바카 병원 의료물품 지원,  
모자 보건, 저체중아에게 영양식 지원, 마을개발 지원

JTS America는 매달 한 번씩 뉴스레터를 후원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Office: (201)224-3834, Cell: (516)734-1047  
E-mail: jtsamerica.ngo@gmail.com



### 1. 프랑스 까르멜(CARMEL) 수도원과의 만남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몽펠리에(MONTEPELLIER)에 위치한 까르멜 수도원에서 JTS의 북한 돕기 사업에 2,000유로(한화 2,906,480원)를 기부해주셨습니다. 2013년 1월 21일에 까르멜 수도원에 계신 한국인 마리평화 수녀님께서 법륜스님의 북한 돕기 사업에 관한 기사를 보시고 저희 JTS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북한 사업에 관련하여 자료를 보내드리고, 수도원장이신 마리 조제 수녀님께서 수도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 저희 JTS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동포를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



여학생들의 인도 전통 무용

### 1. 수자타 아카데미의 19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 1월 6일 19주년 개교기념식 행사

수자타 아카데미가 세워진 지 벌써 19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뜻 깊은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 인도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셨습니다. 행사 3개월 전부터 매일 방과 후에 연습한 초등학교생들이 꼭두각시, 태권도, 인도 전통 무용, 뮤지컬 형식의 모던 댄스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20주년 개교기념식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행사 후, 초중등, 유치원 학생까지 특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생 수련 후 법륜스님과 함께

### 2. 2013년에는 더욱 멋진 선생님과 리더가 되겠습니다. -1월 24~26일 교사 및 중학생 수련

수자타 아카데미와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수자타 아카데미 출신 선생님과 중학생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일 학교가 있는 우리 마을, 동계스워리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자는 취지로 학교 앞 전정각산 등반과 보드기야 도보순례를 법륜스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중학생 수련을 통해서 2013년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함께 열띤 토론도 벌였습니다. 수련을 통해 더욱더 능률하고 책임감 있는 교사로 거듭난 그들이 있어 수자타 아카데미의 2013년은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신나는 댄스타임

### 3. 인도 독립을 기념하며 즐거운 마을 잔치도 함께! - 1월 26일 독립기념일 행사 및 자그디스푸르, 두르가푸르 마을 잔치

인도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국기게양식과 다양한 문화공연이 수자타 아카데미 운동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학교 옆 마을인 자그디스푸르, 두르가푸르 주민들을 초대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두 마을 학생들이 댄스와 음악에 끼가 많다는 것은 동계스워리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더욱 멋지게 공연하는 아이들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신나는 댄스타임에는 무대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자신들의 춤사위를 뽐내었습니다. 잔치 날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인도 잔치 음식인 뿌리, 사부지, 과일 등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웃 간의 정도 나누었습니다.



취락단 하는 모습

#### 4. 마을의 취락단 - 안투비가마을 우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마을의 불편을 스스로 해결하는 취락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투비가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한 우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락단을 시작하였습니다. JTS에서 기술자와 자재(시멘트, 모래)를 공급하고, 마을에서는 노동력 및 식사를 제공합니다. JTS에서는 마을의 도움이 되어 나눔이 있고, 마을은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눔이 있어 서로가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우물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오래오래 잘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Myanmar 미얀마



쭌차웅 마을 다리 공사

#### 1. 긴급복구 다리 건축 공사

2012년 우기 때 홍수로 파손된 쭌차웅 마을의 다리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리가 완공 되면 쭌차웅 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20개 마을의 주민들이 경운기를 통해 농산물 등을 안전하고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고, 학생들은 자전거나 부모님의 오토바이를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우기 시 보트를 이용해서 학교를 가거나 병원을 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는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학교 재건축 조사

#### 2. 학교 보수 공사 및 기자재 지원

홍수로 인해 외벽, 창문 등이 심각하게 파손된 학교의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는 벽돌로 만든 외벽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붕괴 위험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책을 확실히 파악한 후 지원을 하기 위해 현재 해당 지역 교육청 및 엔지니어 등과 지원 및 복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홍수로 인해 책걸상, 칠판 등 기자재가 파손된 학교 측의 수요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카 마을 다리 측량 조사

#### 3. 긴급복구 다리 측량 조사

탄터빈 마을의 다리와 다카 마을의 다리의 복구를 위해 측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터빈 다리는 작년 홍수로 인해 다리가 완파되어 강물에 떠내려 갔고, 다카 다리는 반파 되어 일부 주민들은 흔들거리는 다리를 기어서 건너는 중입니다. 현재는 대나무를 엮어서 임시 다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매년 우기 때마다 불어난 강물에 부서지는 임시 다리 대신 튼튼한 새 다리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엔지니어 모두 열심입니다. 해당 다리는 2월 중에 착공, 6월에 완공 될 예정입니다.



아웅산 장군 나루터 복구 사업 체결

#### 4. 아웅산 장군 나루터 복구 공사

짜웅공 타운십의 주민들과 타운십 관공서의 요청으로 JTS와 짜웅공 타운십은 미안마의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이 연설을 했던 아웅산 나루터의 복구 공사를 함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루터 복구 공사를 통해 짜웅공 타운십 주민들은 지역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JTS는 해당 나루터 복구에 들어갈 주요자재인 목재(땡그루 나무) 전량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복구공사는 JTS의 원칙에 따라 타운십 주민의 자원봉사 건축참여와 기타 자발적인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 Indonesia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이문국 소속 직원들과 현장 시찰

#### 1. 현장시찰

2013년 2월 7일 법무인권부 이문국 소속 직원들이 현장시찰을 왔습니다. 꼬뜨말린 땅 보건소와 우바 관개수로를 시찰하였고,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관련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지역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 Cambodia 캄보디아



학교건축 중인 웅천마을 주민들

#### 1. 2013년 교육 분야 연간회의

라타나끼리 주 교육청 주관 2013년 교육 분야 연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13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주에서 교육관련 활동을 하는 정부단체와 NGO단체들이 모두 모여 2012년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2013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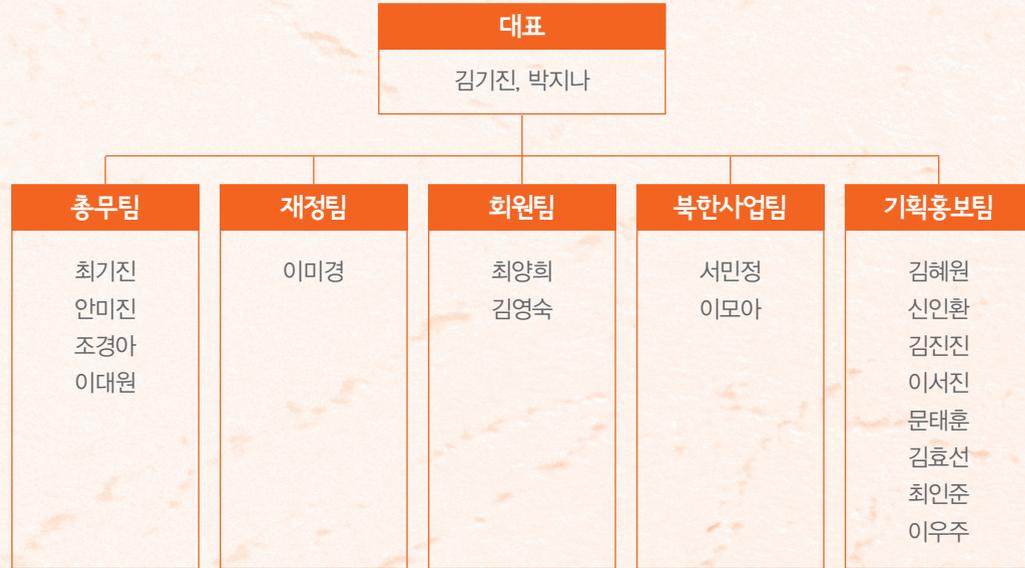


인동미어지역 답사 및 미팅

#### 2. 지역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미팅

2013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활동가들이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지역교육청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사업 예정지의 마을 주민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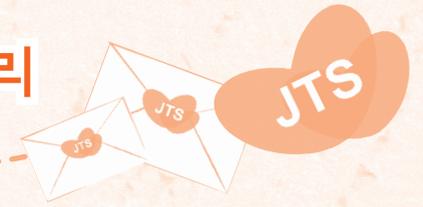
<국내 상근 자원 활동가>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b>인도</b>	김정준, 김신아, 이세형, 박명승, 최선희, 백슬기, 주연우, 최동호, 박성재, 김연희, 변유경, 이유진
<b>필리핀</b>	송현자, 배명숙, 송지홍, 이재곤, 임선호
<b>캄보디아</b>	박병수
<b>인도네시아</b>	임희성, 오성근, 김선욱
<b>미얀마</b>	김성현

## 후원인의 소리



- 북한 어린이들은 행복하고 동생에게도 좋은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김지은-
- 북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배고프게 뜻깊게 사용해주시요. -문진영-
- 학생들이 쓰레기장 정리를 하면서 모은 폐품을 팔아 매년 연말에 기부를 하고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친구들의 정성이 전합니다. -김인용, 임지우, 채현우, 이수민-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을 합니다. 수고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철-
- 살생의 죄에 대한 참회로 생명을 살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수희-
- 준형이의 세들맛이 기념입니다. 작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김준형-
- 적은 액수지만 북한 어린이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김정애-
- 북한 아이들 및 동포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김현아-
- 부처님의 일생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강은주-
- 부디 소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 -전소연-
- 초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김혜영-
- 어머님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김미숙-
- 다음번엔 더 많이 할께요.. 나무관세음보살 -박현-
- 아이들이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고 남한에서는 들썩들썩한데 거기서 밥은 잘 먹고있니..? -이주형-
- 온 세계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힘을 내보렴. 사랑한다. 화이팅! 곧 만나자. -허은희-
- 중환자실에 계신 시어머님이 건강해지시길 발원합니다. 굶주리고 아프신 분들께 어머니의 사랑을 드립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미경-

# 2012년도 기금사용 결과보고

(2012. 01. 01. ~ 2012. 12. 31.)

## [수입]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율(%)	비고
후원금	3,961,499	81.0	정기, 특별후원금
모금활동수입	184,192	3.8	캠페인 및 저금통 포함
사업비보조금	433,323	8.9	국제협력단(KOICA) 외
이자수입	310,445	6.3	
<b>수입합계</b>	<b>4,889,459</b>	<b>100</b>	

## [지출]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율(%)	비고	
사업비	북한사업비	768,342	32	취약계층식량, 전국고아원지원 외
	인도사업비	244,176	10.2	동계스와리16개마을교육지원, 보건 의료지원, 마을개발
	필리핀사업비	445,353	18.5	민다나오 및 다몰목 학교건축 등 교육지원
	캄보디아사업비	211,013	8.8	라타나끼리 3개마을 학교건축 교육지원사업
	기타해외사업비	295,972	12.3	인도네시아 : 유치원, 보건소 관개수로 외 스리랑카 : 아누라다푸라 지역 관개수로 등 농업지원
	해외긴급구호사업비	133,874	5.6	필리핀, 미얀마 태풍피해 긴급 구호
	국내사업비	63,847	2.7	재가노인, 장애인지원
	홍보사업비	83,106	3.5	소식지제작 외
	<b>사업비계</b>	<b>2,245,683</b>	<b>93.6</b>	
	관리운영비	156,093	6.4	임차료 및 발송비 외
<b>지출합계</b>	<b>2,401,776</b>	<b>100</b>		
<b>차기이월금</b>	<b>2,487,683</b>			
<b>총 계</b>	<b>4,889,459</b>			

# 특별후원금 (2012. 12. 01. ~ 2013. 1. 31.)

## 12월 북한결연

(주) 우공디자인	100,000	김승희 50,000	박세인 2,000	안영현 50,000	이수선 12,000	정명주 10,000
(주)오메가포인트	10,000,000	김아사 100,000	박수영 100,000	안태현 109,000	이수진 5,000	정민호 20,000
104차 일상에사여있기	452,000	김애숙 240,000	박수현 35,000	안혜선 10,000	이순이 1,000,000	장백기 50,000
강경순 5,000	김연옥 40,000	박연호 30,000	안혜원 20,000	양미자 10,000	이실 56,230	장봉연 8,000
강규홍 30,000	김연은 41,000	박용광 30,000	양민철 10,000	양승돈 150,000	이영희 50,000	장스런 20,000
강문선 10,000	김영길 50,000	박유숙 100,000	양승민 50,000	양해진 10,000	이영희-1 150,000	장영부 20,000
강병규 800,000	김용길 20,000	박재신 38,000	양승준 20,000	양해진 10,000	이옥순 20,000	장은중 100,000
강영미 30,000	김용환 20,000	박지환 300,000	양해진 10,000	양해진 10,000	이용건 20,000	장재욱 700,000
강정목 32,000	김유선 30,000	박철웅 50,000	양민철 50,000	양민철 50,000	이용숙 32,210	장재훈 200,000
강현정 4,000	김윤경 94,660	박하늘 8,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경 50,000	장정숙 2,000
고은정 100,000	김은순 2,000	박현숙 1,000	양민철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장정아 6,000
곽은하 9,000	김은진 110,000	박현주 2,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장지은 3,000
권순호 3,500,000	김은혜 11,000	박해정 1,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장지화 50,000
권오정 50,000	김익기 10,000	박해종 2,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장진희 20,000
권재영 100,000	김인숙 50,000	반순오 1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장현옥 10,000
권주영 10,000	김재경 100,000	방해숙 3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정훈영 2,000
권태미 5,000	김재춘 100,000	배기선 102,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정희경 8,000
권호주 200,000	김장선 121,600	배소영 43,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채천경제동아리3학년콩
갈뵈 1,089,000	김장애 200,000	배수인 1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버거우익금 106,500
김강현 30,000	김장연 2,000	배수희 1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채천교경제동아리
김경만 12,000	김장운 500,000	배영태 9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130,000
김경민 8,000,000	김장화 10,000	백서영 49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만희 62,000
김경옥 35,000	김장희 21,000	백일출가7기 53,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성희 300,000
김경희 2,000	김지현 4,000	변기환 1,0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윤영 8,000
김공숙 10,000	김지은 30,000	변은숙 2,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정례 220,000
김귀경 10,000	김지현 300,000	북한어린이들기 15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준향 4,000
김기범 300,000	김지혜 5,000	서보옥 1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구 5,000
김기수 2,000	김창훈 100,000	서선근 6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현 100,000
김기욱 8,000	김창태 140,200	서양숙 2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현명 2,000
김미경 10,000	김철예 10,000	서울정토회 824,47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주미영 200,000
김미숙 2,000	김향란 30,000	서울정토회 자네행회부 824,47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지선미 54,000
김미현 8,000	김해경 23,000	거리모금 857,55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진명순 12,000
김민경 63,000	김해진 2,000	서인명 1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진수이 150,000
김민숙 300,000	김환석 100,000	서정호 53,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진윤아 4,000
김상채 30,000	김화연 40,000	서지희 5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현 100,000
김상호 68,000	김희중 377,200	성상임 6,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현명 2,000
김석순 20,000	나경주 100,000	성윤숙 2,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준향 4,000
김선녀 5,000	남승희 110,000	손득례 5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구 5,000
김선영 4,000	노경희 10,000	손애림 5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현 100,000
김성남 110,000	노산섭 60,000	손재현 2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현명 2,000
김성숙 65,000	노화윤 3,000,000	손정희 66,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주미영 200,000
김성희 100,000	동생 정순선영가남극리 10,000,000	손현숙 3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지선미 54,000
김성희-1 2,000	왕생발원 10,000,000	송윤진 1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진명순 12,000
김소연 10,000	목안방(김홍임) 70,000	송암숙 1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진수이 150,000
김수경 9,000	문미선 9,000	신기성 1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진윤아 4,000
김수진 50,000	문재형 30,000	신방실 3,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현 100,000
김수찬 10,000	문정희 4,000	신수미 6,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현명 2,000
김숙희 22,000	문진영 198,662	신우진 1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준향 4,000
김숙희-1 2,000	문창수 150,000	심영 25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구 5,000
김순신 34,990	민병협 20,000	심희자 2,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현 100,000
김승모 20,000	민평희 100,269	아이즈(에듀케이션) 5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현명 2,000
김승옥 2,000	박금나 30,000	안선영 54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준향 4,000
	박영선 100,000	안선영-1 2,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구 5,000
	박성훈 300,000		양승민 50,000	양민철 50,000	이원주, 이수환, 한상원, 한상영, 한상화, 한금화, 한순화, 한춘화-지일순, 영님의 왕생극락발원	조진현 100,000



한희진 200,000	이보림 10,000	김수연 30,000	금 2,349,640	장구예 50,000
허대영 10,000	이상윤 300,000	김수찬 10,000	선정숙 37,400	장성호 100,000
허우연 50,000	이수빈 100,000	김수현 30,000	설정몽 50,000	장수연 30,000
허황미-조선영기타이영	이영희 50,000	김승희 50,000	손영자 10,000	장영인 50,000
가유주무주고혼영가들의	이윤서 50,000	김연범 30,000	손영희 100,000	정윤석 300,000
극락왕생발원 365,000	이주형 30,000	김영만 1,000,000	손익련 50,000	장진영 30,000
현수연 20,000	이하영 50,000	김용환 10,000	송선진 100,000	김철례 10,000
홍승우 10,000	이향선 10,000	김윤희 100,000	송성순 1,000,000	김혁연 20,000
홍옥선 20,000	이현정 500,000	김은 30,000	송은호 833,000	나경주 100,000
황성민 15,000	동생 장순선영기념극락	김은숙-1 133,000	송광수 50,000	노신섭 20,000
황순남 30,000	왕기원 10,000,000	김은숙 1,000,000	스님감사합니다.	김정현 13,379
황영진 50,000	정민호 10,000	김인숙 50,000	장백기 50,000	김창우 10,000
황지현 10,000	장백기 50,000	김인용, 임지우, 채현우,	장영미 1,000,000	김철호 100,000
	정스란 10,000	이수민 150,000	장임순 30,000	김현이 500,000
	정재욱 200,000	김정자 26,000	장재욱 200,000	김현정 50,000
	정재훈 200,000	김준형 50,000	장재훈 100,000	김혜진 50,000
	정지화 50,000	김지은 200,000	장지화 50,000	김화석 5,000
	정현옥 20,000	김창근 20,000	장필숙 140,000	노신섭 30,000
	조희진 30,000	김태형 300,000	정희교 10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천형준 300,000	김화연 20,000	제이에프씨 300,000	50,000
	김산 10,000	나경주 100,00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양혜진 10,000
	김선남 200,000	최희숙 50,000	(주) 1,800	이광준 10,000
	김수찬 10,000	하지민 10,000	동생 장순선영기념극락	이병철 200,000
	김승희 30,000	홍승우 10,000	왕생기원 10,000,000	이봉기 10,000
	김영숙 30,000	황성민 10,000	두북노인잔치후원금	이영희 50,000
	김영환 10,000	황지현 25,000	2,120,000	이종주 1,250,000
	김인숙 50,000		라중남 50,000	이현정 500,000
	김준형 50,000		류병화 100,000	장윤희 300,000
	김철례 10,000		무명 15,000	정민호 10,000
	김혜영 10,000		무명 6,000	정백기 50,000
	김희연 20,000		무명 100,000	정재욱 200,000
	나경주 100,000		무명 29,500	정지화 50,000
	노신섭 25,000		무정각 100,000	최윤정 50,000
	박별남 30,000		민두대 21,000	최정호 52,950
	박병선 100,000		민홍기 500,000	최희경 250,000
	박보미 100,000		박대승 70,000	최말숙 16,140
	박수영 200,000		박병선 100,000	최영선 10,000
	박연호 30,000		박성은 30,000	최영숙 50,000
	박영재 100,000		박성주 80,000	최윤정 50,000
	박현 5,000		박연호 20,000	최은주 30,000
	방정자 480,000		박영옥 60,000	최은화 13,880
	봉채린 20,000		박영재 100,000	최정호 120,000
	서양숙 20,000		박예경 150,000	최정환 100,000
	서울대보초 5학년5반 환		박연남 500,000	최진영 10,000
	동아리 103,490		박은지 30,000	최진택 30,000
	서인아 30,000		박재호 485,000	최진화 68,000
	손애림 50,000		박정심 50,000	최찬익, 서진희 53,200
	송미선 10,000		박진희 10,000,000	최창수 1,000,000
	삼재희 20,000		박철용 50,000	최태화 50,000
	아이디에듀케이션		박현 5,000	최홍 100,000
	50,000		배정자 100,000	최희운 10,000
	양미자 30,000		백미경 10,000	통영선우들 25,000
	양민철 50,000		김민지 김민주 김민서 김	편옥희 98,500
	양혜진 10,000		도연 김민새 30,000	하은이 59,000
	유정희 10,000		김민표 60,000	하재남 500,000
	이동현 50,000		김보미 300,000	한근석 100,000
	이별철 200,000		김성수 30,000	한정희 500,000
			서울-저녁별부거리모	한지민 10,000,000
				한기환 1,250,000
				홍민기 홍유정 100,000
				황성민 50,000
				황원주 39,060
				황정연 58,400
				황지현 10,000
				김미숙 50,000
				김민정 1,000,000

**필 리 핀**

김산 10,000	김수찬 10,000	김승희 30,000	김용환 10,000	김철례 10,000	김혁연 20,000	나경주 100,000	노신섭 20,000	김정현 13,379	김창우 10,000	김철호 100,000	김현이 500,000	김현정 50,000	김혜진 50,000	김화석 5,000	노신섭 3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50,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박계선 300,000	박미정 31,320	박별남 60,000	박수영 200,000	박승복 500,000	박영식 100,000	박우현 30,000	박유숙 100,000	박재근영기회향보시금	1,600,000	박준자 100,000	박찬호 50,000	박희일 100,000	백경화 50,000	백동하 20,000	서동민 50,000	소진호 30,000	손연경 55,000	슬리유기농영농조합	679,793	심은아 30,000	아이디에듀케이션	50,000	여현주 89,350	오인숙 500,000	윤문사시집반모금	4,007,200	유소향 50,000	유창선 10,000	윤세진 100,000	윤정아 100,000	윤향락 100,000	윤화자 100,000	이나영 17,100	이리라 30,000	이명자 10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용환 10,000	김철례 10,000	김혁연 20,000	나경주 100,000	노신섭 20,000	김정현 13,379	김창우 10,000	김철호 100,000	김현이 500,000	김현정 50,000	김혜진 50,000	김화석 5,000	노신섭 3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50,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박계선 300,000	박미정 31,320	박별남 60,000	박수영 200,000	박승복 500,000	박영식 100,000	박우현 30,000	박유숙 100,000	박재근영기회향보시금	1,600,000	박준자 100,000	박찬호 50,000	박희일 100,000	백경화 50,000	백동하 20,000	서동민 50,000	소진호 30,000	손연경 55,000	슬리유기농영농조합	679,793	심은아 30,000	아이디에듀케이션	50,000	여현주 89,350	오인숙 500,000	윤문사시집반모금	4,007,200	유소향 50,000	유창선 10,000	윤세진 100,000	윤정아 100,000	윤향락 100,000	윤화자 100,000	이나영 17,100	이리라 30,000	이명자 10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용환 10,000	김철례 10,000	김혁연 20,000	나경주 100,000	노신섭 20,000	김정현 13,379	김창우 10,000	김철호 100,000	김현이 500,000	김현정 50,000	김혜진 50,000	김화석 5,000	노신섭 3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50,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박계선 300,000	박미정 31,320	박별남 60,000	박수영 200,000	박승복 500,000	박영식 100,000	박우현 30,000	박유숙 100,000	박재근영기회향보시금	1,600,000	박준자 100,000	박찬호 50,000	박희일 100,000	백경화 50,000	백동하 20,000	서동민 50,000	소진호 30,000	손연경 55,000	슬리유기농영농조합	679,793	심은아 30,000	아이디에듀케이션	50,000	여현주 89,350	오인숙 500,000	윤문사시집반모금	4,007,200	유소향 50,000	유창선 10,000	윤세진 100,000	윤정아 100,000	윤향락 100,000	윤화자 100,000	이나영 17,100	이리라 30,000	이명자 10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용환 10,000	김철례 10,000	김혁연 20,000	나경주 100,000	노신섭 20,000	김정현 13,379	김창우 10,000	김철호 100,000	김현이 500,000	김현정 50,000	김혜진 50,000	김화석 5,000	노신섭 3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50,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박계선 300,000	박미정 31,320	박별남 60,000	박수영 200,000	박승복 500,000	박영식 100,000	박우현 30,000	박유숙 100,000	박재근영기회향보시금	1,600,000	박준자 100,000	박찬호 50,000	박희일 100,000	백경화 50,000	백동하 20,000	서동민 50,000	소진호 30,000	손연경 55,000	슬리유기농영농조합	679,793	심은아 30,000	아이디에듀케이션	50,000	여현주 89,350	오인숙 500,000	윤문사시집반모금	4,007,200	유소향 50,000	유창선 10,000	윤세진 100,000	윤정아 100,000	윤향락 100,000	윤화자 100,000	이나영 17,100	이리라 30,000	이명자 10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용환 10,000	김철례 10,000	김혁연 20,000	나경주 100,000	노신섭 20,000	김정현 13,379	김창우 10,000	김철호 100,000	김현이 500,000	김현정 50,000	김혜진 50,000	김화석 5,000	노신섭 3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50,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박계선 300,000	박미정 31,320	박별남 60,000	박수영 200,000	박승복 500,000	박영식 100,000	박우현 30,000	박유숙 100,000	박재근영기회향보시금	1,600,000	박준자 100,000	박찬호 50,000	박희일 100,000	백경화 50,000	백동하 20,000	서동민 50,000	소진호 30,000	손연경 55,000	슬리유기농영농조합	679,793	심은아 30,000	아이디에듀케이션	50,000	여현주 89,350	오인숙 500,000	윤문사시집반모금	4,007,200	유소향 50,000	유창선 10,000	윤세진 100,000	윤정아 100,000	윤향락 100,000	윤화자 100,000	이나영 17,100	이리라 30,000	이명자 10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용환 10,000	김철례 10,000	김혁연 20,000	나경주 100,000	노신섭 20,000	김정현 13,379	김창우 10,000	김철호 100,000	김현이 500,000	김현정 50,000	김혜진 50,000	김화석 5,000	노신섭 3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50,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박계선 300,000	박미정 31,320	박별남 60,000	박수영 200,000	박승복 500,000	박영식 100,000	박우현 30,000	박유숙 100,000	박재근영기회향보시금	1,600,000	박준자 100,000	박찬호 50,000	박희일 100,000	백경화 50,000	백동하 20,000	서동민 50,000	소진호 30,000	손연경 55,000	슬리유기농영농조합	679,793	심은아 30,000	아이디에듀케이션	50,000	여현주 89,350	오인숙 500,000	윤문사시집반모금	4,007,200	유소향 50,000	유창선 10,000	윤세진 100,000	윤정아 100,000	윤향락 100,000	윤화자 100,000	이나영 17,100	이리라 30,000	이명자 10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용환 10,000	김철례 10,000	김혁연 20,000	나경주 100,000	노신섭 20,000	김정현 13,379	김창우 10,000	김철호 100,000	김현이 500,000	김현정 50,000	김혜진 50,000	김화석 5,000	노신섭 3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50,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박계선 300,000	박미정 31,320	박별남 60,000	박수영 200,000	박승복 500,000	박영식 100,000	박우현 30,000	박유숙 100,000	박재근영기회향보시금	1,600,000	박준자 100,000	박찬호 50,000	박희일 100,000	백경화 50,000	백동하 20,000	서동민 50,000	소진호 30,000	손연경 55,000	슬리유기농영농조합	679,793	심은아 30,000	아이디에듀케이션	50,000	여현주 89,350	오인숙 500,000	윤문사시집반모금	4,007,200	유소향 50,000	유창선 10,000	윤세진 100,000	윤정아 100,000	윤향락 100,000	윤화자 100,000	이나영 17,100	이리라 30,000	이명자 10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용환 10,000	김철례 10,000	김혁연 20,000	나경주 100,000	노신섭 20,000	김정현 13,379	김창우 10,000	김철호 100,000	김현이 500,000	김현정 50,000	김혜진 50,000	김화석 5,000	노신섭 3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50,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박계선 300,000	박미정 31,320	박별남 60,000	박수영 200,000	박승복 500,000	박영식 100,000	박우현 30,000	박유숙 100,000	박재근영기회향보시금	1,600,000	박준자 100,000	박찬호 50,000	박희일 100,000	백경화 50,000	백동하 20,000	서동민 50,000	소진호 30,000	손연경 55,000	슬리유기농영농조합	679,793	심은아 30,000	아이디에듀케이션	50,000	여현주 89,350	오인숙 500,000	윤문사시집반모금	4,007,200	유소향 50,000	유창선 10,000	윤세진 100,000	윤정아 100,000	윤향락 100,000	윤화자 100,000	이나영 17,100	이리라 30,000	이명자 10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용환 10,000	김철례 10,000	김혁연 20,000	나경주 100,000	노신섭 20,000	김정현 13,379	김창우 10,000	김철호 100,000	김현이 500,000	김현정 50,000	김혜진 50,000	김화석 5,000	노신섭 30,000	노원골사람들6학년모임	50,000	목인방(김홍임) 70,000	박계선 300,000	박미정 31,320	박별남 60,000	박수영 200,000	박승복 500,000	박영식 100,000	박우현 30,000	박유숙 10																												

# 해외JTS 후원금 (2012. 12. 01. ~ 2013. 1. 31.)

허학도	100,000
허형미	50,000
한기환	1,250,000
홍민기 홍유정	100,000
홍영희	100,000
홍지우 컷돌	300,000
황성민	5,000
황성민	10,000
황영순	5,000
황원주	39,060
황정연	58,400
황지영	10,000
황지현	10,000
후원자	100,000

## 필리핀

권현진	250,000
김은웅	50,000
김미자	50,000
김산	10,000
김삼미	10,000
김선종	20,000
김승희	30,000
김은희	50,000
김인숙	30,000
김정현	10,000
김창우	10,000
김태화	50,000
박희일	95,780
신동현	83,000
아이제이듀케이션	
	50,000
유지연	20,000
이미경	50,000
이서현	50,000
이주은	50,000
장백기	50,000
정인승	10,000
정재욱	200,000
정지화	50,000
채승인	100,000
최은경	50,000
허학도	10,000
황성민	5,000
황성민	10,000
황지현	10,000

미 국 J T S	
Nam S Chung	\$ 50.00
백은영	\$ 500.00
최영태 김성순	\$ 200.00
Andre Stewart	
Bub Hwa Sa	\$ 40.00
Buddhist Temple	\$ 40.00
Elema Kim	\$ 100.00
Ganesh Natarajan	\$ 50.00
Grace Ahn	\$ 40.00
Grace Ahn	\$ 40.00
Heekyung Sanders	
Helen Kim	\$ 50.00
Jai Jun Byeon & In	
Sook Jeong	
Jihye Des Jadon	\$ 30.00
Jin O'Neill	\$ 120.00
Joan Pape	\$ 20.00
Joanna Gill	
K&L Enterprises	\$ 100.00
Bond Cleaners	
Linda H Davies	\$ 290.00
Meerae Realty Corp.	\$ 40.00
Mujusang	\$ 40.00
Ryu Gina	\$ 200.00
S Won Des	\$ 530.00
St. Judes council	
knights of Columbus	\$ 200.00
Sue Y Kim	\$ 40.00
Sunghee Wojcik	7,500.00
Tom S Yoon	
Yam Yam Icecream	\$ 100.00
Young J Koh	\$ 20.00
Young Le	10,000.00
Zhiyu Tam	\$ 40.00
강 데이빗	\$ 160.00
강보란	\$ 80.00

강수경	\$ 500.00
강유신(캘거리)	
강은희	\$ 40.00
고복순	\$ 100.00
고창미	\$ 40.00
국약사랑	\$ 100.00
권영미	\$ 100.00
권오석	\$ 100.00
권주옥	\$ 100.00
권혁준	\$ 100.00
김 남	\$ 80.00
김나정	\$ 30.00
김명	\$ 200.00
김영호	\$ 200.00
김영희	\$ 40.00
김미경	\$ 240.00
김미량	\$ 340.00
김선화	\$ 100.00
김성남	\$ 80.00
김세환	\$ 50.00
김숙현	\$ 60.00
김순미	\$ 100.00
김연남	\$ 30.00
손정훈	\$ 100.00
김예진	\$ 20.00
김오필	\$ 500.00
김태태	\$ 60.00
김지원	\$ 40.00
김재우	\$ 100.00
김재원	\$ 40.00
김점숙	\$ 40.00
김장남	\$ 200.00
김정아	\$ 50.00
김정은	\$ 40.00
김지훈	\$ 40.00
김지현	\$ 50.00
김진유미	\$ 200.00
김진호	\$ 200.00
김차판매	\$ 730.00
김향남	\$ 100.00
김혜숙	\$ 500.00
김해진	\$ 50.00
나은영	\$ 100.00
도성희	7,500.00
마이블 양	\$ 61.00
무 명	\$ 20.00
무주상	\$ 40.00
문희경	\$ 40.00
민덕홍&김순영	\$ 2,333.00
Young J Koh	\$ 200.00
민준기	\$ 200.00
박경배	\$ 80.00
박경희	\$ 40.00
박덕순	\$ 100.00
박민혜	\$ 40.00
박성신, 바리나	

	\$ 100.00
박숙현	\$ 100.00
박승민	\$ 100.00
박승용	\$ 91.50
박용일	\$ 100.00
박은선	\$ 20.00
박일환	\$ 100.00
박장규	\$ 100.00
박정현	\$ 50.00
박지영	\$ 40.00
박찬수	\$ 40.00
박태현	\$ 40.00
박현수	\$ 325.00
배 엽	\$ 50.00
배미경	\$ 20.00
백은주	\$ 200.00
백일주	\$ 40.00
변광립	\$ 100.00
서인호	\$ 40.00
서홍석	\$ 40.00
센프란시스코 송년법회	\$ 365.00
소선주	\$ 40.00
송영화	\$ 200.00
손정훈	\$ 100.00
송나라	\$ 500.00
송년파티	\$ 619.00
송현림	\$ 40.00
송호성	\$ 30.00
송혜지	\$ 40.00
시애틀정교회	\$ 810.00
인문	\$ 40.00
임선희	\$ 60.00
자연나라	\$ 2000.00
자재현	\$ 40.00
장경숙	\$ 40.00
장동현&홍경선	\$ 150.00
한주희	\$ 100.00
한혜선 한윤홍	\$ 200.00
하성호	\$ 100.00
하성화	\$ 80.00
하세운	\$ 150.00
홍희선	\$ 90.00
황광성	\$ 40.00
한국에서 내심	
원낙선&생낙준	3,000,000원

옥경미	\$ 40.00
우홍석	\$ 500.00
원윤경	\$ 100.00
유성묵	\$ 40.00
유수영	\$ 40.00
윤영수	\$ 700.00
이강준	\$ 20.00
이경택	\$ 423.85
이규범	\$ 200.00
이남긴	\$ 40.00
이동근	\$ 40.00
이동영	\$ 600.00
이동영	\$ 300.00
이미경	\$ 200.00
이수민	\$ 120.00
이연순	\$ 200.00
이영숙	\$ 40.00
이원심	\$ 400.00
이재남	\$ 40.00
이정선	\$ 500.00
이정은	\$ 40.00
이정인	\$ 100.00
이정희	\$ 50.00
이중순	\$ 40.00
이주희	\$ 50.00
이지훈	\$ 200.00
이철언	\$ 40.00
이태연	\$ 40.00
이현숙	\$ 120.00
이화순 /허원	\$ 810.00
인문	\$ 40.00
임선희	\$ 60.00
자연나라	\$ 2000.00
자재현	\$ 40.00
장경숙	\$ 40.00
장동현&홍경선	\$ 150.00
한주희	\$ 100.00
한혜선 한윤홍	\$ 200.00
하성호	\$ 100.00
하성화	\$ 80.00
하세운	\$ 150.00
홍희선	\$ 90.00
황광성	\$ 40.00
한국에서 내심	
원낙선&생낙준	3,000,000원

## 독일JTS 12월

북한결연	3,712,093원
모지보건	3,712,093원
인도및 제3세계	3,712,093원
정수환	\$ 50.00
정양희	\$ 40.00
정연옥	\$ 500.00
정용미	\$ 40.00
정응해	\$ 200.00
정주영	\$ 40.00

정주영	\$ 30.00
정지연	\$ 40.00
정춘자	\$ 100.00
정태행	\$ 1,740.00
정화정	\$ 40.00
제중환의원	\$ 200.00
조명옥	\$ 50.00
조홍욱	\$ 40.00
조윤	\$ 80.00
조인식	\$ 125.00
조인자	\$ 100.00
조진	\$ 20.00
조청호	\$ 20.00
조현	\$ 40.00
조혜련	\$ 40.00
주미숙	\$ 200.00
주성신	\$ 90.00
차선영	\$ 50.00
차영진	\$ 400.00
차유정	\$ 40.00
차주호	\$ 30.00
차치근	\$ 160.00
최경숙	\$ 140.00
최영호	\$ 50.00
최영호	\$ 40.00
최윤희	\$ 400.00
최의선	\$ 25.00
최의선 최희나	\$ 500.00
하경순	\$ 1,000.00
하보경	\$ 20.00
하정옥	\$ 300.00
하혜숙	\$ 150.00
한규희	\$ 50.00
한성후/이중순	\$ 150.00
한주희	\$ 100.00
한혜선 한윤홍	\$ 200.00
하성호	\$ 100.00
하성화	\$ 80.00
하세운	\$ 150.00
홍희선	\$ 90.00
황광성	\$ 40.00
한국에서 내심	
원낙선&생낙준	3,000,000원

# 나눔저금통 현황 (2012. 12. 01. ~ 2013. 1.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 거제

김순신 34,990 원마트 117,770 원마트 18,590 유주성 44,900 유주성 23,920 최은화 23,780

## 경주

고성신 16,960 권기영 19,390 김임동 19,220 무명 29,500 선정숙 37,400 이영단 10,410 이정희 32,040 이찬희 6,270 정순옥 15,350 조영자 45,720 최말숙 16,140 코모도호텔경주객실부 70,000 황인재 25,420

## 광주

동림동우체국 40,500

## 김해

김병숙28,890 김해법당 18,950

## 대구

권영순2개 53,240 권오채,영정희 90,400 김동철 25,930 김재현, 권오채 57,100 김철호26,180 무명 19,750 무명 10,920 무명3개 59,700 박경미 20,760 박미숙 21,670 박순덕13,400 박진옥 33,700 서미 40,520 신미경 31,460 에드윈 23,270 윤경화 29,410 윤성원28,310 윤진옥 28,930 이마트마일리지 45,074 이수미 29,000 이정환7개 207,140 임금실 68,490 임금실57,380 전애나 23,620 조옥분 32,120 조혜연21,670 최중영23,930 홀플러스 23,320

## 대전

곽영술 25,280 김기민 31,570 김기일 28,720 김치영 24,980 대전법당 17,580 명창문 22,240 무명 31,240 무명 183,140 박예진 25,140 박진영 41,470 안지훈 38,120 이산근 57,430 이우진 33,420 정경주 48,200 태현성 17,770 홍순여 40,800 홍순옥 40,020

## 동래

강은주 37,900 강은주 149,650 강은주 72,760 구현우 16,120 권카윤 21,540 김규동 26,670 김이숙 45,980 김지훈 2,840 박미화 20,000 박윤희 27,800 부곡초6-4 29,790 서흥재 20,880 성순경 19,000 손숙연 14,810 송현주 71,170 송현주 23,170 안선희 5,810 오은선 10,590 윤미화 16,960 이나금 50,100 이민주 20,030 이소옥 44,000 이시영 17,000 이진호 16,520 이진호 32,870 정수구 38,310 황혜림 26,550

## 미산

김승중 7,900 고경녀 57,460 김상선 27,690 무명 115,298 무명 24,680 오을미 65,420 우리마트 51,220 이지운 52,530 코모도미니여사님 4,260 코모도호텔 6,560 해운동도원오리금 107,120

## 목포

조희우 35,770

## 서울

104차일개수련원 5,350 강동균 88,170 강명희 13,200 강병창 27,020 강지현,김민주 1,010 고영신,심유현 33,140 권문경 13,150 권서준 25,610 권용미 30,170 김경남 13,000 김미옥 26,070 김미자 19,030 김미호 33,620 김민주 38,820 김범 19,400 김보성 8,200 김성근 19,330 김승일 3,580 김승일 990 김연희 23,560 김영란 51,000 김유진 28,610

김은주 45,510 김의용 34,880 김지현 38,150 김주현 8,470 김준서 138,600 김지은 23,870 김현정 16,290 김형애,송명연 28,670 김홍수 26,380 김홍수 29,100 노정배 22,600 노혜숙 23,380 다수 17,990 류호석 18,500 류효준 27,060 무명 229,970 문현화 24,640 문형국 33,420 박고은 21,000 박소정 17,960 박소정외친구들 34,390 박시현 20,400 박원희 25,050 박정수 19,880 박종화 32,400 박종화 63,400 박진우 18,030 백효진 29,130 사공효정 16,000 서경은 25,670 서울대학교대학원인류학과 21,240 서울수양학교1-1박소진외친구들 22,850 서원준 9,150 서윤서 42,000 성종희 10,900 성창희 65,570 손보경 12,810 손옥순 21,920 손은미 63,500 송미옥 21,210 신도시무살(권혜숙) 40,030 신윤아 75,030 신장규 14,610 신현옥 14,550 오강록 18,940 원무홍 8,090 원정희 37,210 유수 24,930 유영희 42,400 유총희 29,450 윤정숙 18,900 윤지성 59,320 윤철형 17,650 윤태훈 16,600 이대영 15,790 이보현 25,840 이상엽 7,360 이상호 29,890 이상호 41,510 이양수 27,300 이양수 32,780 이영미 27,850 이영순 17,500 이영혜 22,720 이영아 4,000 이원진 39,870 이은주 30,000 이재황 20,150 이지연 17,220 이진아 45,130 이현숙 34,370 임숙 24,390 임유정 6,520 임현정 21,000 임희숙 24,120 정윤수,장지수 47,700 정춘희 27,500 정혜진 27,140 정남희 11,400 정다은 11,680 정상옥 13,000 정선희 23,430 정성자 247,340 정재욱 18,340 조선희 23,910 조순주 12,100 조이현 13,180 조종상 56,300 조주현 32,500 조혜영 32,000 중사 26,900 지현서 22,500 천정희 9,250 최동호 26,590 최선희 28,160 최은호 23,400 최인혜 18,390 최재현 14,810 하지란 29,100 한원우 24,600 허민 19,040 허영경 5,770 허형미,김인후 171,000 홍순진 18,490 홍정미 29,230 홍지현 33,790 황미순 16,000 황정자 29,220 황해선 19,600

## 광주

동림동우체국 40,500

## 김해

김병숙28,890 김해법당 18,950

## 대구

권영순2개 53,240 권오채,영정희 90,400 김동철 25,930 김재현, 권오채 57,100 김철호26,180 무명 19,750 무명 10,920 무명3개 59,700 박경미 20,760 박미숙 21,670 박순덕13,400 박진옥 33,700 서미 40,520 신미경 31,460 에드윈 23,270 윤경화 29,410 윤성원28,310 윤진옥 28,930 이마트마일리지 45,074 이수미 29,000 이정환7개 207,140 임금실 68,490 임금실57,380 전애나 23,620 조옥분 32,120 조혜연21,670 최중영23,930 홀플러스 23,320

## 대전

곽영술 25,280 김기민 31,570 김기일 28,720 김치영 24,980 대전법당 17,580 명창문 22,240 무명 31,240 무명 183,140 박예진 25,140 박진영 41,470 안지훈 38,120 이산근 57,430 이우진 33,420 정경주 48,200 태현성 17,770 홍순여 40,800 홍순옥 40,020

## 미산

김승중 7,900 고경녀 57,460 김상선 27,690 무명 115,298 무명 24,680 오을미 65,420 우리마트 51,220 이지운 52,530 코모도미니여사님 4,260 코모도호텔 6,560 해운동도원오리금 107,120

## 목포

조희우 35,770

## 서울

104차일개수련원 5,350 강동균 88,170 강명희 13,200 강병창 27,020 강지현,김민주 1,010 고영신,심유현 33,140 권문경 13,150 권서준 25,610 권용미 30,170 김경남 13,000 김미옥 26,070 김미자 19,030 김미호 33,620 김민주 38,820 김범 19,400 김보성 8,200 김성근 19,330 김승일 3,580 김승일 990 김연희 23,560 김영란 51,000 김유진 28,610

규 26,770 임채성 22,110 정찬웅 21,700 주순옥 42,490 진혜란 18,700</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